

일본 및 북부큐슈에 있어서의 관광산업과 산업공동화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河村 誠治

나가사키대학 인간사회학부 국제관광학과 조교수

野村 淳一

야마구치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차 례

- | | |
|---------------------------------|---------------------|
| 1. 머리말 | 5.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개요 |
| 2.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관광진흥과 관련된 문제의 소개 | 6. 산업공동화의 영향과 요인 분석 |
| 3. 동아시아의 공업화와 탈공업화 | 7. 관광산업의 생산 파급효과 분석 |
| 4.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산업공동화와 지역 경제진흥 | 8. 결론 |

1. 머리말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일수록 관광진흥에 주력하는 현상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관광진흥이 지역의 주체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왜 그럴까? 그것은 관광진흥 그 자체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장래를 맡기는 면 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공업화를 위한 자원 배분 감소와 산업 집적의 지연, 그리고 기존 산업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 버리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년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이나 공업과 같은 물자재 생산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급속히 추진되어 결국 뒤떨어진 지역에 대한 관광진흥을 더욱 요구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파헤쳐보면 지역의 산업구조, 더 나아가서는 자급자족이나 지역내자급이란 지역내 자급률 저하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큐슈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

역일수록 자급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일본 및 북부 큐슈에 있어서의 관광진흥의 바람직한 모습을, 특히 동아시아의 공업화 및 산업공동화란 문제와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하며, 일본 및 북부큐슈와 관광진흥, 동아시아와 국제화, 공업화와 탈공업화, 산업공동화와 지역내 자급률 저하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 부분에서는 일본에서의 관광진흥이 사실상 동아시아의 공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공동화의 문제로서 일본의 관광진흥을 포함한 탈공업화 현상이 동아시아의 공업화와 병행하여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제2부분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및 북부큐슈의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진흥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시나리오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제3부분에서는 일본 및 북부큐슈의 산업구조 변화 및 지역내 자급률 저하란 실정을 산업별로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도부터 시작된 한일해협권에서의 지역관광연구, 즉, 2000년도의 「북부큐슈에 있어서 테마파크의 현황과 경제과급 효과」와 2001년도의 「한일 해협권지역으로 국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를 총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과거 2년의 연구보고서에 이미 서술한 것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둔다. 그리고 다음에서 나오는 목차 1~5와 8을 카와무라(河村), 6과 7을 노무라(野村)가 각기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2.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관광진흥과 관련된 문제의 소재

최근 환경보호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공업 및 공업화에 대한 시선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관광진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키워드로 한 그린 투어리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공업화와 관광진흥을 대립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진국에 있어서의 공업화를 돌이켜 볼 때, 또 지금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볼 때 공업화 없이 관광진흥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공업화와 관광진흥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업화의 성과 없이는 오늘과 같은 대중 관광의 물적, 기술적 조건인 대형 항공기 또는 차량 등 교통수단도 대형 숙박시설도 등장할 수 없고 대중이 생존비용 이상의 소득과 여가시간을 확보하여 관광활동에 참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업화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관광자원에 크게 손실을 준 것도 사실이다. 단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도 공업 및 공업화의 성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¹⁾는 다음 절에도 언급하지만 제2차대전 후 특히 1980년대 이후 농업부문에서의

1)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란 중국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이 아니라 일본, 아시아NIEs 4(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 4(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과 같이 제2차 대전 후에 분업에 의한 협업관계

원시적인 (자본)축적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였고 그 결과 관광활동도 활발해졌다. 세계관광기관(WTO)은 1998년 세계의 국제관광객 도착자 수가 6억4천만명, 이 중 구주가 3억8천만명을 웃돌고, 미주가 약 1억 2천만명, 동아시아 및 태평양이 9천만명을 약간 밑도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이 2010년에는 세계의 국제관광객 도착자 수가 10억명에 달하고 동아시아, 태평양의 국제관광객이 미주보다 3천600만명이나 많은 2억3천만 이상으로 증가하여 보고 구주 다음의 세계 제2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²⁾

동아시아의 관광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관광활동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가적인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어느 한 나라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공업화와 지역진흥이란 관점도 관광진흥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다. 그것은 관광자원을 가진 관광(목적)지가 국내 각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일본과 같은 수도권 집중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지역차원에서의 관광진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서두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또 결론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지역레벨의 장기적인 관광진흥에는 개방경제를 긍정하면서도 지역내 자급률³⁾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그것은 글로벌한 국제분업이 공업분야에 얼마나 침투하여 공업화가 성숙단계에 도달하고 탈공업화(포스트 공업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견지해야 할 경제원칙인 것이다. 특히 산업 연관의 확대가 처음부터 적은 형편에 있는 중소 지방도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 자급자족이란 전통적인 가치관이 급속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무역이나 직접투자에 중점을 둔 경제운영이 동아시아 구석구석까지 침투되어 지역의 자급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가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3. 동아시아의 공업화와 탈공업화

1950~60년대의 일본, 70년대 후반~80년대 전반의 아시아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80년대 후반의 ASEAN 4(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90년대의 중국으로, 제2차대전 후의 동아시아는 수출지향형 공업화 전략으로 차츰 지역내 협업을 통한 분업관계를 강화하여 기러기형 경제발전(flying goose pattern of industrialization)을 달성하여 왔다.⁴⁾

를 구축하여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한 나라와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 특징으로서는 구미와 같은 시장 중시형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주도형(일부 국가나 지역은 개발독재) 경제운영이란 점이다.

2) 국제관광진흥회(JNTO), 「국제관광백서 2001년판」, (재)국제관광 서비스센터

3) 지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내 생산액의 비율로서 지역내자급률=1-이수입률로 나타낸다.

4) 기러기형 경제발전론(flying goose pattern of industrialization)은 아카마츠 카나메씨가 역설한 후진국산업의 발전론에 의한 것으로서 버논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론과도 통한다. 후진국의 공업화에는 소비재로 시작되

1987년 12%였던 동아시아 10(일본+NIEs 4+ASEAN 4+중국)의 수입의존도(국내총생산 GDP에 점유하는 수입의 비율)는 2000년에는 20%에 달했으나 이에 대해 같은 기간 중 수출 의존도는 15%에서 89%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처럼 수입의존도를 크게 웃도는 수출의존도의 신장은 동아시아 경제가 외향형 경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로 동아시아의 수출액은 1987년에 5천억달러였으나 1994년에는 1조 달러대에 돌입, 2000년에는 1조 6,560억 달러를 기록했다.⁵⁾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수출의 중심이 일용잡화와 경공업품 등 국제경쟁력이 높은 노동 집약적 제품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많은 근로자에게 고용과 소득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여가시간도 차츰 늘어나게 되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크게 변하고⁶⁾, 동아시아 지역내산업의 유통 및 서비스업의 발전도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은 산업전체에 있어서 공업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을 초월하여 유통, 서비스업의 점유율을 높이기까지에 이르렀다. 즉 탈공업화 현상인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가장 공업화에 주력하여 수출경쟁력을 키워 온 중국에서도 공업화수준(GDP 중 공업생산 비율)이 과거 20년간 40% 대에 머물고 있는 한편 탈공업화수준(GDP 중 제3차산업의 비율)은 21%에서 33%로 10포인트나 늘어났다. ASEAN 4에서의 탈공업화 수준은 32-49%에서 36-53%로, NIEs 4에서는 46-59%에서 52-86%에 달하고 있다.

<표 1> 동아시아의 공업화 수준과 포스트 공업화 수준

(표1-1) 공업화 수준(%)

공업화 수준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1980년	32.55	31.77	39.48	23.78	31.36	24.24	31.16	29.46	37.83	44.19
1990년	29.34	31.73	36.51	19.08	28.98	30.99	38.29	28.75	33.88	36.97
1997년	25.76	31.43	30.61	8.28	24.94	34.36	38.02	25.69	36.89	43.53
1998년	24.96	33.69	30.21	8.49	25.63	35.46	38.75	25.55	38.77	42.62
1999년	24.53	33.79	29.33	8.40	26.76	37.28	41.76	25.13	37.04	42.75
2000년	-	34.57	28.97	8.37	28.19	38.74	47.57	26.17	40.12	44.26

는 수입대체 공업화에서부터 생산재 수입대체 공업화, 수출지향 공업화로의 진행이 필수적이다. 후진국의 수출 확대에는 국내 투자 및 생산을 우선시킬 수 밖에 없다. 이 국내투자 및 생산은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즉 후진국은 수입으로부터 생산으로, 그리고 수출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5) (재)국제 동아시아 연구센터 [동아시아의 시점 2002 춘계특별호 - 동아시아경제의 추세와 전망] 7~8페이지

6)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사람의 이동의 자유(신분적 자유)와 금전적인 자유(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관광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1인당 GDP가 800~1000달러 때 국내관광의 동기가, 4000~10,000달러일 때에 국제관광의 동기가, 또 이를 초과할 때 대륙을 건너 행해지는 국제관광의 동기가 부여된다고 한다. 2000년 동아시아의 1인당 GDP가 800달러 미만인 나라는 728달러를 기록한 인도네시아뿐이었다.

(표1-2) 탈공업화 수준(%)

포스트공업화수준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1980년	54.40	45.48	46.57	69.14	60.60	48.55	42.89 (81년)	36.17	31.79	21.40
1990년	57.66	48.39	54.59	75.49	65.26	50.27	42.58	43.63	39.06	31.34
1997년	63.97	51.58	62.13	86.20	65.82	50.19	44.33	49.00	39.58	30.92
1998년	64.98	51.25	62.96	85.70	64.85	49.51	42.81	51.60	36.68	32.13
1999년	65.66	52.42	64.26	85.97	65.21	49.51	42.73	52.25	36.71	32.94
2000년	-	52.67	65.53	86.47	65.58	49.15	39.72	52.93	35.82	33.22

주 : 여기서의 공업화수준은 GDP 중 공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의 비율 (당년 가격으로 계산). 단 싱가포르에는 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탈공업화 수준은 GDP 중 상업, 운수/통신업, 금융업, 행정 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비율(당년 가격으로 계산)

자료 : 國際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 『東アジアへの視点2001年春季特別号—東アジア經濟の趨勢と展望』, 2002年春季特別号

동아시아에서의 무역과 직접투자 수용의 확대가 경제성장, 소득과 노동분배율 향상, 여가 시간 증가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유통 및 서비스업 특히 개인에 대한 서비스업의 성장, 탈공업화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배경에는 세계적인 평화, 과학기술의 진보, 특히 교통,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인구의 고령화 등이 있다. 근면성과 저축률이 높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일정한 경제성장과 한층 탈공업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구미 선진각국의 현상이라 여겨왔던 탈공업화의 물결이 발전과정에 있는 동아시아에까지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

4.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 및 북부큐슈에 있어서의 산업공동화와 지역경제 진흥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플라자합의에 의한 급격한 엔고의 허용, 이윤율의 저하, 무역마찰의 심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떨어지고, 자동차나 전기 등의 대규모 하이테크기업이 속속 동아시아 또는 북미의 현지생산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85년에 440억달러였던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는 3년후인 1988년에 1,108억 달러, 다시 2년후인 1990년에 2,014억 달러로 불과 5년 동안 5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대기업 메이커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제조업의 기반기술(기계공작, 금형가공, 주조, 단조, 도금 등)로 지역경제를 지켜 온 중소기업의 많은 부분이 폐업을 해야 상황에 이르러 일본의 공업생산력 저하가 우려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일본이 세계에서 자랑해 온 풀 셋트형 산업구조의 붕괴, 즉 지역의 산업집적 장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이 집중해 있는 도쿄도 오오타구

나 히가시 오사카시뿐만 아니라 북부큐슈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큐슈·야마구치 지역의 기업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나 북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하였다. <표 2>와 같이 큐슈·야마구치지역 기업의 진출건수는 1986-90년까지 249건, 1986-2001년까지 861건이었다. 진출처로서 가장 많은 곳은 아시아였다. 아시아에 있어서도 1986-90년까지는 아시아NIEs 66건, 중국 44건, ASEAN 43건으로 아시아 NIEs가 가장 많았으나 1986-2001년에 있어서는 중국 293건, 아시아NIEs 190건, ASEAN 147건으로 아시아 NIEs와 중국의 순위가 역전되었다. 아시아 다음으로 많은 진출처로서는 북미이긴하나 전체에서 점하는 진출건수는 1986년-90년까지의 27.3%에서 16.7%로 대폭 줄어들었다. 근년의 진출건수를 보더라도 아시아 특히 중국이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년(1997-2001) 해외진출 기업동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0%전후-75%전후, 도매 및 소매업이 0-45%전후, 서비스업이 4, 5%-20% 이상, 운수 및 통신업 4, 5%-10% 전후로서 역시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대부분이 중국이나 대만으로 진출한 반도체관련기기나 자동차부품 메이커였다.

<표 2> 큐슈·야마구치 지역기업의 진출처별로 본 해외 진출건수 추이 (단위 : 건)

		1986~2001											
		86~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아시아	636	155	48	52	58	73	86	69	34	19	13	15	16
아시아NIEs	190	66	21	15	7	10	16	14	14	6	8	6	7
한국	44	19	6	1	2	2	3	-	1	2	3	5	2
대만	42	18	4	5	1	3	2	3	3	1	1	1	3
홍콩	54	17	6	6	2	4	6	4	6	2	1	-	2
싱가포르	43	12	5	3	2	1	5	7	4	1	3	-	-
중국	293	44	16	27	42	46	50	33	12	7	4	5	7
ASEAN	147	43	11	7	7	17	20	21	8	6	1	4	2
중동	2	1	-	-	-	-	-	1	-	-	-	-	-
기타 아시아	6	1	-	3	2	-	-	-	-	-	-	-	-
구주	60	17	14	2	9	4	1	3	2	3	4	-	1
북미	144	68	17	14	6	5	8	8	6	1	6	4	1
중남미	6	1	-	1	1	1	-	-	-	1	-	-	1
오세아니아	13	8	2	1	-	1	1	-	-	-	-	-	-
합계	861	249	81	70	74	84	96	80	42	24	23	19	19

자료 : 재단법인 큐슈경제조사협회 『큐슈·야마구치 지역기업의 해외진출1986-2001』 2002년 4월

산업의 공동화에 대한 해석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공업선진국 일본이 계속하여 기존의 산업과 기술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결국은 일본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일본은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 기술개발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잃어버린 산업이나 기술체계는 간단히 회복할 수 없다. 폴 셋트형 산업, 기술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산업, 기술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제조업이 쇠퇴하여 지역경제가 균형을 잃게 됨에 따라 전국 각지 자치단체가 조성, 유치한 공업단지와 나중에 언급하게 될 테크노폴리스의 대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지역경제 재생을 위한 2개의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나는 1986년에 제정한 [민간 사업자 능력활용을 통한 특정시설 정비 촉진 임시조치법](민활법), 또 하나는 다음 해인 1987년에 공포한 [종합 보양지역 정비법](리조트법)이었다.

민활법은 내수 확대와 지방활성화란 취지하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보조와 인허가 수속 간소화를 가능케 하고 후자인 리조트법은 테마 파크 등 민간 휴양시설에 대한 세제 특례조치(사업소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등의 과세면제 및 감면 등), 특별상각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성과 자금면에서의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와 영리 목적의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제3섹터]기업 형성을 촉진하게 되었다.

5. 「전국 종합개발 계획」의 개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에서 공업화가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대책으로서 관공진흥 특히 테마 파크 건설이란 마치 현실문제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산업진흥시책이 취해져 왔다. 즉 지역 차원의 탈공업화는 취약한 산업이 국제경쟁 속에서 타도되어 가는 산업의 공동화속에서 진전된 것으로서 공업사회의 성숙된 결과라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지방 차원의 공업화의 좌절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 책임도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에 모여진 세금을 지방에 분배하는 중앙집권적 세제에 의거하여 [전국 종합개발 계획](전종계획)이란 형태로 지방에 관여하고 리드해 왔다. 원래 그것은 중앙의 관점에서의 지방개발로서 지역의 자주성이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또 도쿄와 지방간의 격차 시정라고 하는 전국적 공평을 도모하는 입장에서의 입안으로서 효율 중시의 행동계획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처럼 개발독재라고도 야유되는 중앙집권적인 경제운영은 1997년의 아시아 통화, 경제위기까지 동아시아의 기적적인 발전을 가능케한 동아시아 공통시스템으로서 절찬을 받아온 것이기도 하다.⁷⁾

7) 세계은행은 1993년 옥스포드 출판회로부터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Policy를 출판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번역판은 이듬해 東洋경제신문사로

여기서 전국 각지에서 테마 파크 건설과 같은 형태의 지역관광진흥에 이르게 된 「전종계획」을 돌이켜 보기로 한다. 또 1962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전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테마 파크 건설에 관계되는 것은 다음 <표 3>과 같이 제4차 전종 계획이다.

제1차 전국 종합개발계획(1전종)은 국토종합개발법이 제정된 12년후인 1962년 10월 5일에 내각회의 결정되었다. 그것은 1970년을 목표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즉 도쿄 일극집중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에 신산업도시(거점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쿄 일극집중이 시정되기는 커녕 고도경제성장 지상주의에 의한 지방의 신산업도시에서의 미나마타병, 이타이 이타이병과 같은 공해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1969년 5월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제2차 신전국종합개발계획 (2전종)에서는 1985년까지 개발가능성의 전국 확대와 균형화가 기본목표로서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토목개발, 교통·통신 네트워크 구축, 광역생활권 정비 등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전국적인 지가상승, 환경파괴가 초래되어 토목건설국가란 이미지가 정착하게 되었다. 삼림의 황폐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1977년 11월의 내각결정에 의한 제3차 전국종합개발계획 (3전종)에서는 1987년경을 목표로 환경중시의 정주권 구상, 즉 영국식 전원도시국가 구상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산·학·주 연결에 의한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개발이 추진되었다. 1983년에는 테크노 폴리스가 제정되어 전국에 미국의 실리콘 벨리를 모방한 하이테크형 산업집적인 테크노 폴리스 육성이 추진되었다. 이는 환경파괴를 수반한 대규모 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 생산성이 전국평균을 웃돌지 못하고⁸⁾ 산업과 인구의 지방으로의 분산도 실현할 수 없었다.

1987년 6월에 내각결정된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4전종)에서는 2000년을 목표로 인구 및 제반 기능의 도쿄 일극집중, 국제화의 급격한 진전,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인한 지방에서의 고용문제 악화 등에 대응한 다극 분산형 국토건설이 추진되었다. 도쿄 일극집중의 흐름은 피

부터 白鳥正喜 번역서 [동아시아의 기적 :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로서 출판되었다. 이에 대해 Krugman,P.는 1994년 포리언 어페어즈 지에 “The Myth of Asian’s Miracle” [환상의 아시아경제]란 논문을 기고하여 아시아경제 발전이 구 소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기술혁신이나 생산효율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방대한 규모의 투입증대에 의한 발전, 즉 자원 총동원형 발전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결코 오래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환상의 아시아경제] [中央公論]1995년1월호)

8) 하이테크산업의 창출및 육성을 통한 지역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1983년 7월에 [고도기술공업 집적지역 개발 촉진법](테크노 폴리스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 원형이 된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벨리였다. 그 탄생에 스탠포드 대학과 쇼크레이 반도체연구소 등 [학]이 크게 기여함에 따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창조적 기술 입국)와 함께 학술연구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 및 운택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중요시되었다. 그것은 즉 [산, 학, 주]가 조화를 이룬 21세기를 향한 지역개발(定住구상)을 달성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테크노 폴리스계획 연도는 제1기가 1990년, 제2기가 1995년이었다. 제2기에서는 테크노 폴리스라고 하면서 하이테크 산업이 적다는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특정사업의 집적 촉진에 관한 법률(두뇌입지법)]도 1988년에 시행되는 등 연구기관이나 정보부문 등 산업의 두뇌부분을 지방에 집적시키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가 시도되었다. 제1기에 전국 14군데였던 테크노 폴리스 지정지역이 같은 법에 의해 전국 26개소까지 확대되었다. ((재)일본 입지센터(1993) [테크노 폴리스 추진조사 보고서] 등)

크를 넘었으나 이는 거품경제의 붕괴가 크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에서의 테마 파크 등 관광·부동산개발 러시는 이 [제4전종]에 의한 부분이 크다. 공업화의 좌절과 산업의 공동화 진전, 인구의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갈 길을 잃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없이 받아들였다. 원래 이렇다 할 관광자원도 없고 관광개발과는 인연이 적었던 지방에서도 제3섹터 테마 파크⁹⁾ 건설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관광, 부동산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8년 3월 내각 결정된 제5차 전국종합개발(5전종)에서는 [기후나 풍토, 문화, 지리적 특성으로 공통성이 있는 지역 및 이러한 관련을 통해 폭 넓은 축의 권역] 으로서 4개의 국토축(북동, 일본해, 서일본, 태평양신)이 정해져 개발이 추진되었다. 좁게는 4개의 블록에 있어서의 교통망 정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넓게는 문화 등을 포함한 교류권 육성으로 해석되어 관광개발이 문화란 표현을 달리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단, 이 제5전종의 배경에는 공공투자 억제란 3전종 이후의 시대적이 요청이 있고, 개발중심으로부터 환경중시, 경제중시로부터 사회, 문화중시로, 태평양벨트 중시로부터 탈 태평양벨트로 정책변경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방방곡곡에 도로를 정비하고 지역의 관광진흥의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인구나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제조업 육성에 의한 지역발전이 [1전종]을 제외하고는 희박하다는 점, 사람과 자연의 공생(환경)을 한편에서는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지가 상승을 노린 토목건설, 건설관련산업 의존형 지역발전에 급급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섹터 테마 파크는 이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9) 관(행정)의 공공사업도 민간의 영리사업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최초 미국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일본에서는 1969년 신 전국종합개발계획 발표 후에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도쿄 디즈니랜드도 일부 자치체가 출자하고 있어 제3섹터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설립 당초의 출자비율은 치바현 4.6%, 우라야수시가 0.9%였다. 하우스 텐 보스에 대한 자치체의 출자비율은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니시카레쵸오 등 3개 자치단체가 합계 약 2.5%. 기타 대부분의 테마 파크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받고 있다. 또한 자치성(구)은 행정의 출자비율을 25%이상으로 해석하였다.

<표 3>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추이

항목	전국 종합개발계획	신 전국종합개발계획	제3차전국종합개발계획	제4차전국종합개발계획
책정 시기	1962. 10. 5 내각의결정	1969. 5. 30 내각의결정	1977. 11. 4 내각의결정	1987. 6. 30 내각의 결정
계획 기간	1960년 - 1970년	1965년 - 1985년	약 10년간	1986년 - 2000년
목표 연도	1970년	1985년	기준년도 1975년, 2000년 을 전망하면서 1980(1985) 를 목표연도로 함	2000년
배경	1. 전후부흥에서 고도성장 장으로 2. 지역적과제 현저화 (1) 과대도시의 문제 (2)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3. 소득 2배증가계획 책정 태평양벨트시대 구상	1. 고도성장경제 2. 인구, 산업의 대도시 집중 3. 지역의 소득격차 4. 자원의 유효이용 촉진	1. 고도성장에서 안전 성 장으로 2. 인구의 지방정착화, 산 업의 지방분산 3. 지역의 종합적 격차 4. 자원제약 현저화 5. 국민의식 변화	1. 도쿄권으로 고도의 도 시기능/인구의 집중 2. 지방권의 고용문제 심각 3. 도,현단위 인구 재감소 4. 기술혁신/정보화, 고령 화국제화의 진전, 산업 구조 전환
기본 목표	(지역간 균형잡힌 발전) 1. 도시의 과대화 방지 와 지역격차 축소 2. 자연자원 유효이용 3. 자본, 노동, 기술 등 각 자원의 적절한 지 역 배분	(풍부한 환경 창조) 1. 장기간에 걸친 인간 과 자연과의 조화 , 자연의 항구적 보호 /보존 2. 개발 기초조건 정비 에 의한 개발가능성 의 전국 확대/ 균형 3. 지역특성을 살린 개 발 준비를 통한 국 토이용 재편효율화 4. 안전, 쾌적,문화적 환경조건 정비보전	(인간거주의 종합적 환경 정비) 1. 한정된 국토자원을 전 계로 함 2. 지역특성, 역사적 전통 적 문화를 존중. 3.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함	(다극 분산형 국토형성) 1. 도쿄 일극집중 시정 2. 지방권의 전략적 중점 적 정비
개발 방식	(거점개발 방식) 목표달성을 위해 공업의 분산이 필요하며 도쿄 등 기존 대집적지와 관 련시켜가면서 개발거점 을 배치하고 교통통신시 설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상호영향 을 줌과 동시에 주변지 역의 특성을 살려 연쇄 반응적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잡힌 발전을 실현한다.	(대규모프로젝트구상) 신칸센, 고속도로 등 네트워크와 대규모 프 로젝트 방식으로 국토 이용의 편중을 시정하 고 과밀, 과소, 지역격 차를 해소한다.	(정착거주 구상) 대도시 집중 억제, 지방진 흥형 인구정착구상에 따 라 인구의 거주성을 확보 함으로써 과밀,과소문제 를 해소하고 균형잡힌 국 토이용을 실현한다.	(교류 네트워크 구상) 지역주도에 의한 지역조 성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위한 기반인 교통정보/통 신체계의 정비와 교류의 기회창출 확대를 도모한 다. 교류 네트워크구상 추진 을 통해 다극분산형 국토 를 형성한다.

항목	전국 종합개발계획	신 전국종합개발계획	제3차전국종합개발계획	제4차전국종합개발계획
중요 과제	1.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공장 등의 신증설 억제, 이전, 도시기능 배치 재편성을 도모. 2. 정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공업분산을 유도하고 중규모 지방개발도시를 설정. 3.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촉진	1. 교통/통신 네트워크 우선적 정비. 2. 네트워크와 관련시켜 가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시 3. 광역생활권을 설정하여 생활환경의 국민적 수준을 확보	1. 자연환경, 역사적 환경 보전을 도모 2. 국토의 안전성과 국민 생활의 안전성 확보 3. 거주지 종합적인 환경(자연, 생활, 생산)을 정비 4. 교육, 문화, 의료 등 기회의 균등화 도모	1.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토 형성 2.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지역조성 추진 3. 새로운 풍요로움의 실현을 위한 산업전개와 생활기반 정비 4. 거주와 교류를 위한 교통, 정보, 통신체계 정비
주요 시책	신산업도시 건설촉진법(1962년) 및 공업정비 특별지역 정비촉진법(1964년)에 의한 신산업도시 및 공업정비 특별지역 정비	국토의 주축 형성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서의 토마코마이 동부 지역, 무즈오가와 하라지구의 정비	모델 거주권 정비	다극 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1988년)에 의한 국가 행정기관 이전 등, 진흥거점지역제도, 업무 핵심도시 정비.
평가	도쿄의 비대화는 멈추지 않고 공해가 각지에서 발생. 과소화 진행.	지가 상승, 환경파괴 확대화 삼림의 황폐 시작	인구, 산업의 지방분산 실패, 거주권 형성도 실현하지 못함.	도쿄권으로 인구집중의 피크는 지났으나 지방의 중추도시로의 집중이 현저하여 다극 분산형 실현에는 미치지 못함.

자료 : 下河邊淳(1994) 『戦後国土計劃への証言』 日本經濟評論社, 74-75頁. 단, 原資料は, 地域振興整備公団編 『地域統計要覽』 1992年版 및 国土庁資料, 평가의 난은, 本間義人(1994) 『誤算の国土計劃—五全総は必要か』 『エコノミスト』 1994.7.19』 에 의함

6. 산업공동화의 영향과 요인 분석

산업의 공동화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 준 요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5년마다의 작성이란 한계는 있지만 지역의 산업구조를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산업연관표이다. 산업연관표는 어느 지역의 산업 투입과 산출 구조를 표현한 것으로서 간결하게

$$(1) AX + F = X$$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A란 투입계수행렬이며 산업마다 그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단위수를 나타내고 있다. 투입계수는 구체적으로 원재료의 소비액을 생

산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X는 생산액의 열 벡터를 나타내며 F는 최종수요의 열 벡터를 나타낸다. 따라서 (1)식은 수급 밸런스식 ([중간수요(A)X+ 최종 수요(F)]=[총공급]에 해당한다. 이 수급 밸런스식을 만족시키는 생산액은 아래의 (2)식 처럼 최종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균형 산출고 모델이라 한다.

$$(2) X = (I - A)^{-1} F$$

우측변의 계수행렬은 레온티에프 역행렬이다.

<표 4> 지역내 자급률 추이

(단위 : 10억엔, %)

No.	산업	전국 (85년)		전국 (95년)		후쿠오카현(85년)		후쿠오카현(95년)	
		생산액	지역내 자급률	생산액	지역내 자급률	생산액	지역내 자급률	생산액	지역내 자급률
1	농림수산업	17,366	83.44	15,818	84.98	440	3.74	376	-3.39
2	광업	2,046	-88.59	1,660	-251.85	124	-208.57	89	-73.37
3	식품	35,821	95.25	38,857	87.73	1,224	29.64	1,506	30.89
4	섬유제품	13,550	93.93	11,165	75.39	228	-27.23	212	-95.18
5	펄프/종이/나무제품	16,075	95.23	17,800	89.62	437	26.03	495	3.12
6	화학제품	18,160	91.94	25,778	91.32	635	16.92	607	-18.21
7	석유/석탄제품	7,949	87.84	10,493	89.15	283	-121.40	92	-334.74
8	요업/토석제품	8,349	97.62	9,696	96.73	487	80.01	473	63.84
9	철강	20,964	98.51	20,093	97.02	2,158	86.12	1,258	78.25
10	비철금속	5,127	78.44	6,343	71.65	121	-9.55	87	-71.75
11	금속제품	12,054	99.04	15,708	98.03	343	51.43	449	37.91
12	일반기계	23,829	97.24	28,475	96.10	658	46.79	510	-9.80
13	전기기계	27,566	96.95	50,385	90.37	487	-23.96	796	-3.86
14	수송기계	32,407	98.23	41,856	96.00	653	33.07	1,252	9.49
15	정밀기계	3,672	91.68	3,811	82.05	12	-560.80	15	-416.89
16	기타제조공업제품	26,236	96.68	32,062	91.75	637	30.92	851	14.26
17	건설	66,001	100.00	88,149	100.00	1,870	100.00	2,726	100.00
18	전기/가스/열공급	13,475	99.99	18,810	99.99	560	96.29	558	75.21
19	수도/폐기물처리	6,551	99.99	7,653	99.99	180	99.99	302	99.99
20	상업	61,329	99.40	102,322	99.85	2,853	94.63	5,339	86.02
21	금융/보험	19,022	97.76	36,335	97.17	735	95.68	1,128	73.33
22	부동산	47,909	99.99	64,185	99.99	1,241	99.99	1,952	99.99
23	운수	32,359	95.14	40,897	93.87	1,513	83.64	2,241	88.33
24	통신/방송	7,410	99.61	14,763	99.49	302	86.15	582	94.00
25	공무	19,450	100.00	26,217	100.00	576	100.00	840	100.00
26	교육/연구	25,133	99.94	33,247	99.90	709	98.70	1,268	97.88
27	의료/보건/사회보장	23,677	100.00	36,229	100.00	1,020	98.64	1,700	100.00
28	기타 공공서비스	5,794	98.80	4,659	99.16	169	99.87	215	99.80
29	대 사업소 서비스	38,770	97.99	62,691	97.51	780	94.41	2,367	93.34
30	대 개인 서비스	43,331	97.60	54,173	94.81	1,502	93.83	1,928	86.15
31	사무용품	1,555	100.00	2,037	100.00	61	100.00	76	100.00
32	분류 불명	7,059	96.38	5,518	89.84	252	91.10	191	89.27
	합계	689,995	96.81	927,884	95.29	23,247	71.12	32,481	70.00

주 : 생산액은10억엔 단위, 지역내 자급률 = 1 - 이동수입률(%)

자료 : 『昭和60年-平成2年-平成7年全国表の接続産業連関表』、『昭和60年 福岡県産業連関表』、『平成7年 福岡県産業連関表』

(1)식을 통해 지역의 각 산업이 연간 몇 백만엔의 생산을 하고 그것이 어떠한 산업의 원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가 지역내에서 소비, 투자되고 어느 정도가 지역외로 수출되는지(또는 지역외로부터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해 진다. <표 4>는 1985년과 1995년에 관한 생산액과 지역내 자급률을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전국에 대해서는 산업연관표를 실질화하여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한 접속 산업연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후쿠오카현의 경우는 접속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수 없어 명목 가격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해석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산업공동화를 반영하여 일본 전국이나 후쿠오카현에 있어서도 지역내 자급률은 저하경향(전국 1.5포인트 후쿠오카현 1.1포인트 저하)에 있다. 85년 이후의 엔고를 계기로 많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였다. 수송기계(후쿠오카현 23.6포인트)와 전기기계(전국 6.5포인트), 정밀기계(전국 9.6포인트) 등에서 지역내자급률이 크게 저하되는 등, 산업공동화를 시사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두드러진 저하는 섬유제품(전국 18.5포인트, 후쿠오카현 68포인트), 펄프, 종이, 나무제품(전국 5.6포인트, 후쿠오카현 22.9포인트) 등 무역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과 화학제품(후쿠오카현 35.1포인트), 석유, 석탄 제품(후쿠오카현 213포인트) 등 일본국내의 분업체제 변화를 반영한 것을 볼 수 있어 공동화의 영향이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 지역내의 생산이 어떠한 요인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여 산업 공동화의 영향을 고찰한다. (2)식은 균형 산출고 모델과는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생산액이 궁극적으로 어느 최종 수요요소로부터 유발된 것인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을 고찰하기 위해 최종수요(F)의 내용을 보면 (3)식과 같이 된다.

$$(3) F = C + Q + E - M$$

여기서 C 는 소비, Q는 투자, E 는 수출, M은 수입을 나타낸다. (2)식에 (3)식의 관계를 대입하여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4) X = X^D + X^E - X^M$$

여기에

$$\text{역내 최종 수요} : X^D + (I - A)^{-1}(C +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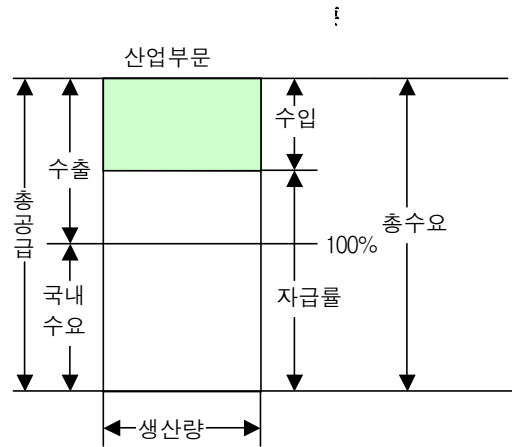
$$\text{해외수요} : X^E = (I - A)^{-1} E$$

$$\text{수입분} : X^M = (I - A)^{-1} M$$

X^D 는 만약 지역내의 수요를 모두 지역내에서 공급할 때 필요한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급 자족 생산액인 것이다. X^E 는 만약 지역내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수출을 위해서만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액이고 X^M 은 수입의 전체를 지역내에서 생산했을 때 필요한 생산액이

다. 즉 현실의 생산액은 이들 3개의 가상적 생산액의 합계로서 지역내 최종수요와 해외수요(수출)에 따른 중간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X^D + X^E$ 만큼 생산액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부는 수입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내 생산액(X)은 여기서 X^M 을 제외한 것이다. 이들 3개의 양의 상대적인 관계와 경제구조를 시각적으로 보기쉽게 한 그림은 자급 자족도라 하여 그 모양이 하늘을 향해 치솟은 빌딩들의 윤곽(skyline)을 연상케 하는 점에서 스카이라인도라 불린다. 스카이라인도 개요는 <그림 1>에서 나타내고 있다. 스카이라인도는 각 산업의 생산량을 저변의 길이로 나타내고 역내 최종수요 X^D 의 크기를 100%로 한 막대 그래프

<그림 1> 스카이라인도 개요



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00%시점의 횡축에 평행한 선(자급자족선)이 그어져 여기에 해외수요 X^E 의 X^D 에 대한 비율(%)을 합해 기둥의 상한을 구한 다음 그 상한치로부터 수입분 X^M 의 X^D 에 대한 비율(%)을 공제하여 실제 역내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막대 그래프의 폭은 각 산업의 지역내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 그래프의 높이는 수출의 상대적 크기에 대응하고 있다. 또 수입분이 해외수요보다 클 때는 그물로 표시한 부분이 자급자족선 밑에 나타나고 지역내 수요에 대해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가리킨다. 즉 지역내 자급자족률의 저하는 이 자급자족선 하측 그물부분 면적의 크기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전국과 후쿠오카현에 관하여 1985년과 1995년의 산업연관표로부터 스카이라인도를 작성한 것이 <그림 2>로서, 그 기초 데이터가 <표 5>와 <표 6>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은 주로 산업연관 분석 소프트웨어 [ADAM]를 활용하였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제조업 점유율의 저하이다. <표 7>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제조업의 점유율은 전국에서 2.8포인트, 후쿠오카현에서는 9.5포인트 저하를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는 식료품(1포인트), 철강(0.9포인트), 섬유제품(0.8포인트)이 큰 저하요인이 되었으며, 후쿠오카현에서는 철강(5.4포인트), 일반기계(1.3 포인트), 석유,석탄제품(0.9 포인트), 화학제품(0.9 포인트)이 큰 저하요인이었다. 1985년은 일본의 환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수출 경쟁력 저하와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가 이러한 변화의 요인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철강에 대한 해외수요는 전국에서 72.5에서 42.4로 약 30 포인트, 후쿠오카현에서 463.3에서 339.0로 약 125포인트 저하함으로써 점유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등한 환율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관해서는 전국의 수송기계에서 해외수요가 약 50 포인트 저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다. 또한 자급자족선 하측의 그물선 부분의 면적도 현저한 변화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산업 공동화는 95년 시점에서는 그다지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단, 산업의 점유율 변화는 아래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요인에 인한 것으로서 산업의 공동화 영향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 공동화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야마다·아사히(1999)처럼 해당지역의 해외진출 기업의 데이터에서 지역으로부터 잃게 된 생산액을 추계하여 그 생산 과급효과를 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제조업을 대신하여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제3차 산업으로서 특히 상업과 사업소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늘어났다. 상업은 전국에서 2포인트, 후쿠오카현에서 4포인트 신장되고, 사업소에 대한 서비스는 전국에서 1포인트, 후쿠오카현에서 3.9포인트 늘어났다. 이것은 제조업의 점유율 저하가 일본 산업의 서비스화란 장기적인 추세의 반영임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에 비해 후쿠오카현이 이처럼 구조변화가 큰 것은 최근의 교통기관의 발달과 정보화에 의해 큐슈의 거점도시로서의 후쿠오카시의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후쿠오카현은 이처럼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능의 충실을 통해 발전해 왔고, 그 찬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다.

후쿠오카현과 전국의 산업구조의 차이점을 보면 후쿠오카현이 해외수요나 수입분(정확히 지역외와의 거래는 해외와의 거래인 수출입과 국내 타지역과의 이출입으로 나누어진다)의 비중이 크다. 예를 들어 95년 시점에서 지역내 수입과의 비율이 150을 넘는 것은 해외수요에 있어서 철강(339), 요업, 토석제품(164), 수송기계(157), 비철금속(155) 등이며, 수입분에 있어서는 비철금속(213), 철강(204), 광업(169), 수송기계(169), 화학제품 (156), 석유/석탄제품(153)이다. 전국에서 지역내수요와의 비율이 100을 넘는 것은 85년 수송기계의 해외수요(108) 뿐이다. 아쉽게도 후쿠오카현의 공표된 자료에서는 수출입과 이출입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 어느 쪽의 비중이 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 해외수요(수출)가 큰 산업은 수입분도 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그 대부분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타지역과의 분업체제에 따른 이출입 비중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후쿠오카현의 산업구조로서 특징적인 것은 기타큐슈시를 주요 기반으로 한 철강의 해외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95년에는 해외수요 저하와 수입분 증대로 인해 점유율도 크게 떨어졌다. 한편 상업과 운수에서 순수 수출이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후쿠오카시의 큐슈에서의 상업거점으로서의 지위 향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지역외와의 거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지역의 자율적 발전 여지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진흥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된다.

<표 5> 스카이라인도의 기초 데이터 : 전국1985-95년

(단위 : 10억엔, %)

No.	산 업	전국 (85년)				전국 (95년)			
		생산량	(비율)	해외수요	수입분	생산량	(비율)	해외수요	수입분
1	농림수산업	17,366	82.44	2.84	20.40	15,818	78.34	1.68	23.34
2	광업	2,046	36.09	18.72	82.63	1,660	21.26	13.39	92.13
3	식료품	35,821	95.01	1.60	6.59	38,857	86.73	0.78	14.06
4	섬유제품	13,550	103.59	14.34	10.74	11,165	78.75	8.34	29.60
5	펄프/종이/나무제품	16,075	100.66	11.28	10.61	17,800	88.77	8.57	19.80
6	화학제품	18,160	107.41	26.94	19.53	25,778	101.54	22.84	21.30
7	석유/석탄제품	7,949	95.29	17.11	21.82	10,493	90.06	11.42	21.36
8	요업/토석제품	8,349	110.22	15.56	5.33	9,696	105.05	13.13	8.07
9	철강	20,964	162.11	72.49	10.37	20,093	126.57	42.38	15.81
10	비철금속	5,127	110.20	52.66	42.46	6,343	90.74	41.49	50.75
11	금속제품	12,054	114.42	19.29	4.88	15,708	103.91	11.75	7.84
12	일반기계	23,829	135.12	41.06	5.94	28,475	129.99	38.18	8.19
13	전기기계	27,566	149.22	56.64	7.42	50,385	133.27	53.05	19.77
14	수송기계	32,407	200.19	107.99	7.80	41,856	145.75	57.81	12.06
15	정밀기계	3,672	144.77	59.87	15.11	3,811	113.87	38.19	24.32
16	기타 제조공업제품	26,236	112.01	21.28	9.27	32,062	97.96	15.21	17.24
17	건설	66,001	100.50	0.92	0.42	88,149	100.09	0.74	0.65
18	전기/가스/열공급	13,475	108.78	15.78	7.00	18,810	100.91	9.15	8.24
19	수도/폐기물처리	6,551	103.61	6.77	3.16	7,653	99.62	3.86	4.24
20	상업	61,329	107.97	11.46	3.49	102,322	103.32	7.57	4.25
21	금융/보험	19,022	106.03	16.21	10.18	36,335	98.00	9.17	11.17
22	부동산	47,909	101.60	3.03	1.44	64,185	100.16	1.45	1.29
23	운수	32,359	115.78	26.98	11.20	40,897	103.49	16.55	13.06
24	통신/방송	7,410	103.92	9.23	5.31	14,763	100.07	5.82	5.75
25	공무	19,450	100.32	0.55	0.23	26,217	99.85	0.25	0.40
26	교육/연구	25,133	107.34	9.63	2.29	33,247	104.48	9.38	4.91
27	의료/보건/사회보장	23,677	100.01	0.03	0.02	36,229	100.00	0.00	0.00
28	기타 공공서비스	5,794	103.84	8.16	4.33	4,659	100.22	3.39	3.17
29	대 사업소 서비스	38,770	104.42	13.43	9.00	62,691	99.01	9.61	10.60
30	대 개인 서비스	43,331	98.23	0.65	2.42	54,173	95.74	1.00	5.27
31	사무용품	1,555	108.20	14.42	6.23	2,037	101.38	9.91	8.54
32	분류 불명	7,059	118.71	32.39	13.68	5,518	92.37	13.20	20.83
	합계	689,995	108.71	15.90	7.19	927,884	101.80	11.89	10.09

주 : 생산액은10억엔 단위. 나머지는 지역내 최종수요와의 비율(%)

자료 : 『昭和60年-平成2年-平成7年全国表の接続産業連関表』

<표 6> 스카이라인도의 기초 데이터:후쿠오카현 1985-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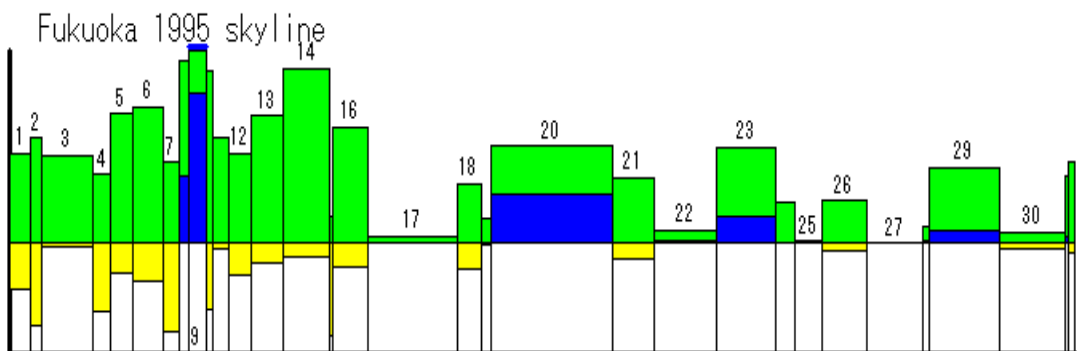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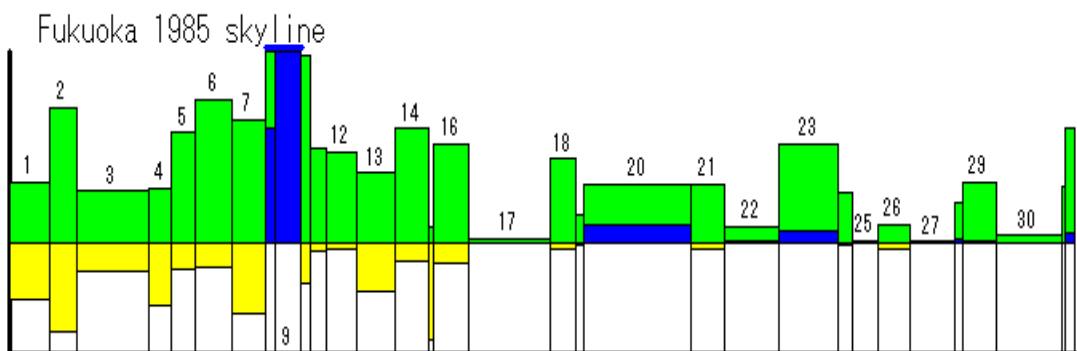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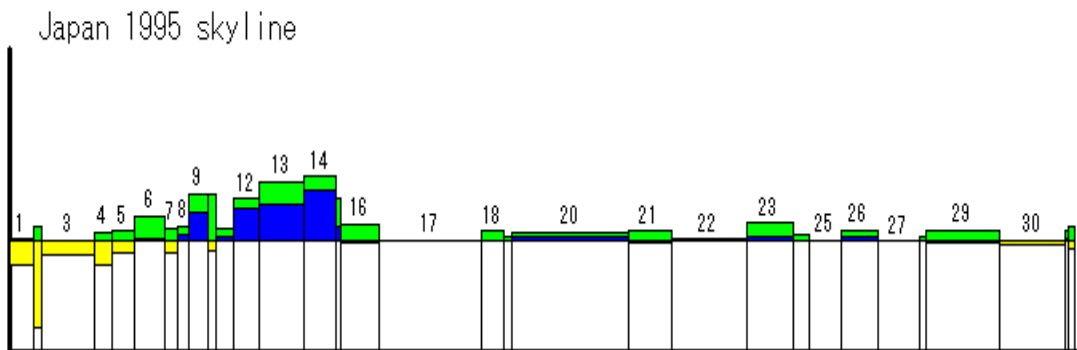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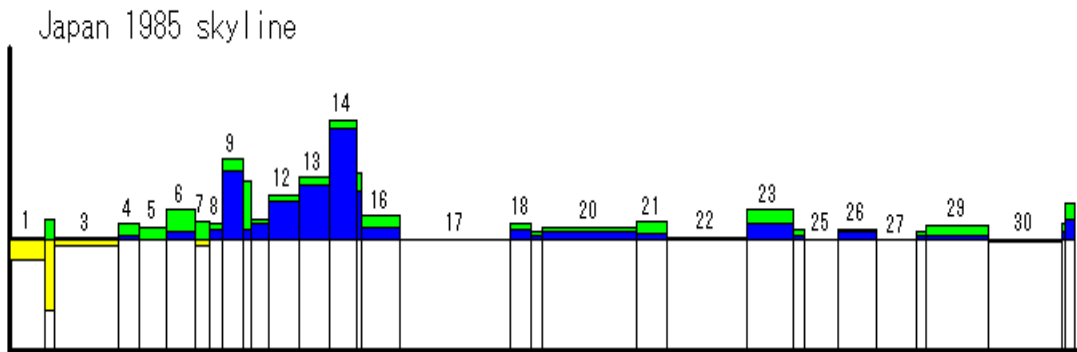
(단위 : 10억엔, %)

No.	산 업	후쿠오카현 (85년)				후쿠오카현 (95년)			
		생산량	(비율)	해외수요	수입분	생산량	(비율)	해외수요	수입분
1	농림수산업	440	49.21	55.20	106.00	376	58.22	81.07	122.85
2	광업	124	19.95	122.32	202.38	89	25.52	94.57	169.04
3	식료품	1,224	75.13	47.52	72.39	1,506	96.96	79.08	82.12
4	섬유제품	228	44.15	49.68	105.53	212	38.16	61.54	123.38
5	펄프/종이/나무제품	437	76.98	100.09	123.11	495	72.50	116.60	144.10
6	화학제품	635	79.16	130.44	151.28	607	65.82	122.29	156.47
7	석유/석탄제품	283	36.76	112.22	175.46	92	20.01	73.02	153.01
8	요업/토석제품	487	203.53	180.19	76.65	473	161.20	163.93	102.74
9	철강	2,158	368.12	463.33	195.21	1,258	235.01	339.03	204.01
10	비철금속	121	63.45	169.64	206.19	87	40.77	154.57	213.81
11	금속제품	343	93.67	85.42	91.74	449	94.21	95.74	101.53
12	일반기계	658	95.10	82.51	87.41	510	71.32	81.19	109.87
13	전기기계	487	56.21	63.21	107.00	796	82.21	114.56	132.34
14	수송기계	653	83.49	103.50	120.02	1,252	88.10	157.27	169.16
15	정밀기계	12	12.15	14.03	101.88	15	16.23	23.18	106.95
16	기타 제조공업제품	637	81.12	89.92	108.80	851	77.96	105.13	127.17
17	건설	1,870	100.32	4.83	4.51	2,726	99.96	6.16	6.20
18	전기/가스/열공급	560	94.72	76.41	81.69	558	77.38	53.89	76.51
19	수도/폐기물처리	180	99.04	25.05	26.02	302	98.90	22.08	23.18
20	상업	2,853	117.46	53.48	36.02	5,339	143.97	87.55	43.57
21	금융/보험	735	94.94	53.19	58.25	1,128	86.22	58.84	72.62
22	부동산	1,241	101.35	14.97	13.62	1,952	102.66	11.90	9.24
23	운수	1,513	111.93	89.79	77.86	2,241	123.70	86.20	62.50
24	통신/방송	302	97.63	45.07	47.44	582	101.05	36.99	35.94
25	공무	576	100.19	2.18	1.99	840	99.81	1.52	1.71
26	교육/연구	709	95.43	17.09	21.65	1,268	92.77	38.37	45.60
27	의료/보건/사회보장	1,020	99.52	1.52	2.00	1,700	100.00	0.00	0.01
28	기타 공공서비스	169	104.32	36.43	32.11	215	102.99	14.47	11.48
29	대사업소 서비스	780	102.80	54.99	52.19	2,367	110.92	68.05	57.13
30	대개인 서비스	1,502	100.42	7.04	6.61	1,928	95.22	9.84	14.62
31	사무용품	61	99.72	52.18	52.46	76	105.66	61.03	55.37
32	분류 불명	252	108.93	104.95	96.03	191	90.68	72.93	82.24
	합계	23,247	96.15	66.32	70.18	32,481	99.67	67.24	67.57

주 : 생산액은10억엔 단위. 나머지는 지역내 최종수요와의 비율(%)

자료 : 『昭和60年 福岡県産業連関表』 『平成7年 福岡県産業連関表』

<도 2> 산업구조의 변화 : 전국과 후쿠오카현



주 : 그림 중의 숫자는 부문에 대응하고 있다. 대응부문 분야의 상세한 것은 <표 1>을 참조

<표 7> 산업구성비의 변화 : 전국과 후쿠오카현 (1985-95년)

(단위 : %, 포인트)

No.	산업	전국			후쿠오카현		
		85년	95년	증감	85년	95년	증감
1-2	1차산업	2.81	1.88	- 0.93	2.42	1.43	- 0.99
3-16	제조업	36.49	33.68	- 2.81	35.97	26.48	- 9.48
3	식료품	5.19	4.19	- 1.00	5.27	4.64	- 0.63
4	섬유제품	1.96	1.20	- 0.76	0.98	0.65	- 0.33
5	펄프/종이/나무제품	2.33	1.92	- 0.41	1.88	1.52	- 0.36
6	화학제품	2.63	2.78	0.15	2.73	1.87	- 0.86
7	석유/석탄제품	1.15	1.13	- 0.02	1.22	0.28	- 0.93
8	요업/토석제품	1.21	1.04	- 0.17	2.09	1.46	- 0.64
9	철강	3.04	2.17	- 0.87	9.28	3.87	- 5.41
10	비철금속	0.74	0.68	- 0.06	0.52	0.27	- 0.25
11	금속제품	1.75	1.69	- 0.05	1.48	1.38	- 0.09
12	일반기계	3.45	3.07	- 0.38	2.83	1.57	- 1.26
13	전기기계	4.00	5.43	1.44	2.09	2.45	0.36
14	수송기계	4.70	4.51	- 0.19	2.81	3.85	1.05
15	정밀기계	0.53	0.41	- 0.12	0.05	0.04	- 0.01
16	기타 제조공업제품	3.80	3.46	- 0.35	2.74	2.62	- 0.12
17-19	기타 2차산업	12.47	12.35	- 0.12	11.23	11.04	- 0.19
20-32	3차산업	39.34	41.06	1.71	38.11	44.60	6.50
20	상업	8.89	11.03	2.14	12.27	16.44	4.17
23	운수	4.69	4.41	- 0.28	6.51	6.90	0.39
29	대사업소서비스	5.62	6.76	1.14	3.35	7.29	3.93
30	대개인서비스	6.28	5.84	- 0.44	6.46	5.94	- 0.53

주 : 구성비는 총생산액에 대한 비율 (%), 증감은 차이(포인트)

자료 : 『昭和60年-平成2年-平成7年全国表の接続産業連関表』 『昭和60年 福岡県産業連関表』 『平成7年 福岡県産業連関表』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구조의 변화는 각 산업 생산액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그 생산액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 원인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1시점과 제2시점의 균형 산출고 모델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기로 한다.

$$(5) \text{ 제1시점 : } X_1 = (I - A_1)^{-1} F_1 = B_1 F_1$$

$$\text{제2시점: } X_2 = (I - A_2)^{-1} F_2 = B_2 F_2$$

이에 따라 생산액 변화는

$$(6) \quad \Delta X = X_2 - X_1 = B_2 F_2 - B_1 F_1 = B_2 [F_2 - F_1] + [B_2 - B_1] F_1$$

로 분석된다. 여기서 $B_2 [F_2 - F_1]$ 는 최종수요의 효과, $[B_2 - B_1] F_1$ 는 투입계수의 효과(기술효과)로 분해된다. (6)식은 생산액의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일어났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액의 점유율 변화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이 비례성장(지역 전체의 성장과 비례하여 성장한 경우의 성장)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산업이 성장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전체의 성장과 비교하여 낮은 비율의 성장이라면 그 산업의 점유율은 저하된다. 이 점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성장율을 α 로 하여 제2시점의 비례성장 생산량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된다.

$$(7) \quad X_2^* = (1 + \alpha)(I - A_1)^{-1} F_1 = (1 + \alpha) B_1 F_1$$

따라서 각 산업에 있어서의 비례성장과의 괴리 ($X_2 - X_2^*$)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8) \quad \begin{aligned} X_2 - X_2^* &= B_2 F_2 - (1 + \alpha) B_1 F_1 \\ &= B_2 [F_2 - (1 + \alpha) F_1] + [B_2 - B_1] (1 + \alpha) F_1 \end{aligned}$$

최종수요는 다시 소비, 투자, 수출, 수입으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9) \quad \begin{aligned} X_2 - X_2^* &= B_2 [C_2 - (1 + \alpha) C_1] + B_2 [Q_2 - (1 + \alpha) Q_1] \\ &\quad + B_2 [E_2 - (1 + \alpha) E_1] - B_2 [M_2 - (1 + \alpha) M_1] \\ &\quad + [B_2 - B_1] (1 + \alpha) F_1 \end{aligned}$$

이 된다. 즉 각 산업에 있어서 비례성장과의 괴리는 소비나 투자, 수출입에 있어서의 괴리에 의한 부분과 투입계수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된다. (9)식을 계산한 결과가 <표 8>, <표 9>이다.

전국에 있어서 비례성장과 정(+의 괴리가 큰 산업은 상업(19조엔 증가), 전기기계(13조엔 증가), 금융보험(10.8조엔 증가), 대사업소서비스(10.6조엔 증가)이다. 상업과 금융/보험은 소비와 생산기술에 의한 효과가 크고, 이것은 경제의 서비스화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사업소서비스는 투자와 생산기술에 의한 효과가 크다. 이것은 경제의 서비스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나 산업의 성질로 보아 수요요인이 소비가 아닌 투자인 점이 특징적이다. 전기기계는 이들 요인 모두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기여하고 있지만 수입의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

해 크고 최근 10년간 크게 수입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기기계가 다른 산업과는 달리 환율 증가에 의한 수입의 급증을 기술의 진보나 국내 수요환기를 통해 극복하고 높은 성장을 실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비례성장으로부터의 괴리의 요인분석 : 전국 (1985-95년)

(단위 : 10억엔)

		생산량 변화	소비 효과	투자 효과	수출 효과	수입 효과	생산기술 효과
1	농림수산업	- 7,535	- 3,878	190	- 221	751	- 4,377
2	광업	- 1,092	451	101	- 231	- 837	- 576
3	식료품	- 9,314	- 5,845	- 224	- 319	- 3,003	77
4	섬유제품	- 7,056	- 2,877	34	- 1,165	- 2,396	- 653
5	펄프/종이/나무제품	- 3,817	49	- 274	- 474	- 1,679	- 1,438
6	화학제품	1,357	773	243	198	- 1,276	1,420
7	석유/석탄제품	- 197	974	146	- 180	- 113	- 1,024
8	요업/토석제품	- 1,532	- 0	- 14	- 328	- 231	- 959
9	철강	- 8,098	672	- 173	- 4,345	- 946	- 3,307
10	비철금속	- 551	262	193	- 276	- 906	176
11	금속제품	- 502	- 32	- 57	- 919	- 505	1,011
12	일반기계	- 3,570	291	- 1,615	- 1,265	- 454	- 527
13	전기기계	13,316	6,112	4,037	4,641	- 5,476	4,001
14	수송기계	- 1,725	5,166	156	- 8,998	- 1,725	3,677
15	정밀기계	- 1,127	270	- 140	- 671	- 325	- 261
16	기타 제조공업제품	- 3,219	142	583	- 1,565	- 2,774	393
17	건설	- 606	367	- 316	- 155	- 190	- 313
18	전기/가스/열공급	689	1,278	143	- 400	- 527	195
19	수도/폐기물처리	- 1,157	- 527	28	- 68	- 117	- 473
20	상업	19,849	11,047	3,233	- 1,801	- 1,222	8,592
21	금융/보험	10,755	5,380	709	- 601	- 1,345	6,611
22	부동산	- 241	5,234	246	- 213	- 273	- 5,235
23	운수	- 2,617	2,147	537	- 2,793	- 1,213	- 1,295
24	통신/방송	4,798	2,529	383	- 112	- 295	2,292
25	공무	62	124	7	- 78	- 37	45
26	교육/연구	- 552	- 1,387	275	- 171	- 710	1,441
27	의료/보건/사회보장	4,390	3,742	0	- 1	0	648
28	기타 공공서비스	- 3,132	- 668	20	- 41	16	- 2,458
29	대사업소 서비스	10,554	1,756	6,550	- 680	- 2,169	5,099
30	대개인 서비스	- 4,097	- 4,486	59	88	- 1,481	1,723
31	사무용품	- 55	85	47	- 36	- 63	- 87
32	분류 불명	- 3,976	1	89	- 934	- 440	- 2,693

<표 9> 비례성장으로부터의 괴리의 요인분석 : 후쿠오카현(1985-95년)

(단위 : 10억엔)

		생산량 변화	소비 효과	투자 효과	수출 효과	수입 효과	생산기술 효과
1	농림수산업	- 238	- 231	- 7	21	254	- 275
2	광업	- 84	2	8	- 166	599	- 527
3	식료품	- 205	- 477	- 12	274	184	- 174
4	섬유제품	- 107	- 86	13	43	- 14	- 63
5	펄프/종이/나무제품	- 116	4	- 14	52	- 60	- 97
6	화학제품	- 280	20	8	- 137	14	- 185
7	석유/석탄제품	- 304	- 6	11	- 227	571	- 652
8	요업/토석제품	- 207	- 2	6	- 121	- 48	- 42
9	철강	- 1,757	26	8	- 1,569	209	- 432
10	비철금속	- 83	1	9	- 67	36	- 61
11	금속제품	- 30	3	- 4	39	- 45	- 24
12	일반기계	- 409	16	- 72	- 81	- 103	- 170
13	전기기계	116	111	- 279	406	- 47	- 74
14	수송기계	340	278	107	1,142	- 1,062	- 125
15	정밀기계	- 2	- 11	- 20	5	34	- 10
16	기타 제조공업제품	- 38	42	- 5	170	- 194	- 50
17	건설	113	23	88	- 6	1	7
18	전기/가스/열공급	- 224	39	- 1	- 45	- 88	- 130
19	수도/폐기물처리	50	28	0	1	- 2	24
20	상업	1,353	392	86	1,556	- 531	- 150
21	금융/보험	101	80	24	156	- 281	122
22	부동산	218	348	6	57	- 19	- 174
23	운수	126	131	19	44	223	- 291
24	통신/방송	160	108	13	14	7	18
25	공무	35	38	0	- 6	1	2
26	교육/연구	278	95	- 27	69	- 70	212
27	의료/보건/사회보장	275	250	0	- 11	20	17
28	기타 공공서비스	- 21	62	1	- 3	- 0	- 80
29	대사업소 서비스	1,278	227	275	391	- 141	526
30	대개인 서비스	- 171	- 122	2	35	- 141	55
31	사무용품	- 9	4	1	8	- 4	- 18
32	분류 불명	- 160	7	0	- 74	14	- 107

비례성장과의 부(-)의 괴리가 큰 산업은 식료품(9.3조엔 감소), 철강(8.1조엔 감소), 농림수산업(7.5조엔 감소), 섬유제품(7.1조엔 감소)이다. 식료품과 섬유제품은 소비 침체와 수입 증대가 주 요인이며, 섬유제품에 있어서는 수출의 저조함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산업은 국내 수요의 저조함과 함께 해외와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 점유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의 경우, 주로 수출의 저조함과 생산기술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해외와의 경쟁에 패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림수산업은 소비 침체와 생산기술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국내수요 포화상태와 더불어 기술혁신의 지연으로 인해 점유율이 저하된 것이다.

후쿠오카현에 있어서 비례성장과의 정(+)의 괴리가 큰 산업은 상업(1.4조엔 증가)과 대사업소서비스(1.3조엔 증가)이다. 상업은 대부분이 이수출에 의한 효과로서 소비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후쿠오카시의 상업기능의 지역외확대가 급속히 진전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대사업소서비스는 모든 요인이 동등하게 작용하고 있다. 생산 기술의 효과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크다는 특징이 있지만 생산기술의 변화는 ①상대가격의 변화, ②프로덕터 믹스의 변화(부문내 생산구조의 변화) ③기술구조의 변화(기술혁신, 원래연료 대체, 업무의 효율화)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후쿠오카현의 표는 명목액 그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상대가격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질화한 접속표로 비교한 것에 비하면 다른 요인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례성장과의 부(-)의 괴리가 큰 산업은 철강(1.8조엔 감소)으로서 그 주요 원인은 수출의 저조함에 있다.

산업공동화의 영향은 수출의 마이너스 효과와 생산기술의 마이너스 효과, 수입의 급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85년부터 95년에 있어서는 산업 공동화가 예상되는 산업에 있어서도 정(+)의 수출효과를 보이거나 기술의 진보를 통해 마이너스를 보완하는 등의 지역내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요인이 작용하여 그 결과 산업공동화의 영향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7. 관광산업의 생산과급효과 분석

관광산업의 진흥이 과연 지역진흥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 관광산업이 어느 정도 생산과급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전국이나 사가현, 야마구치현과 비교해 본다. 관광은 주로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입장 및 관람료, 토산품·물건 구입 비용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 상에 관광산업이란 산업은 존재하지 않고 숙박비 부분은 여관, 기타 숙박소, 음식비는 음식점, 교통비는 운수, 입장 및 관람료는 오락 서비스, 토산품·물건구입비는 상업, 기타는 그 밖의 대개인서비스란 형태로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관광의 진흥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증가는 이

들 산업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어떠한 관광진흥이 실시되느냐에 따른다.

보통 이러한 최종수요 증가에 의한 생산과급효과를 계산할 때 계수행렬 A로부터 이수입분을 공제한 경쟁이입형 모델에서의 역행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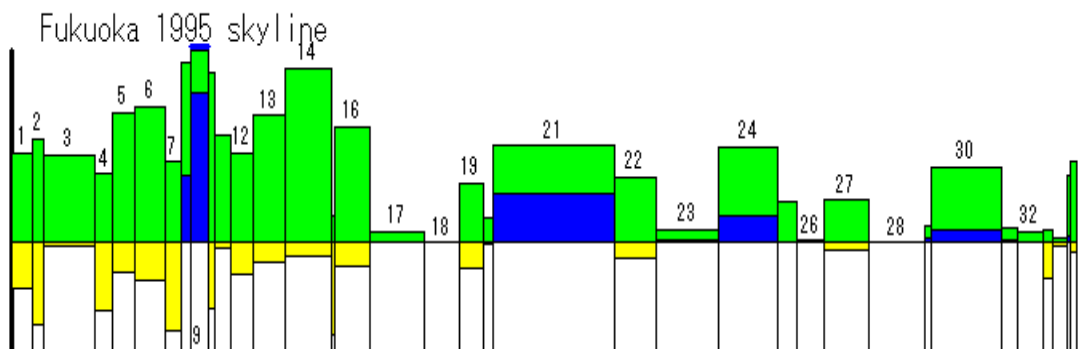
$$(10) [I - (1 - \widehat{M})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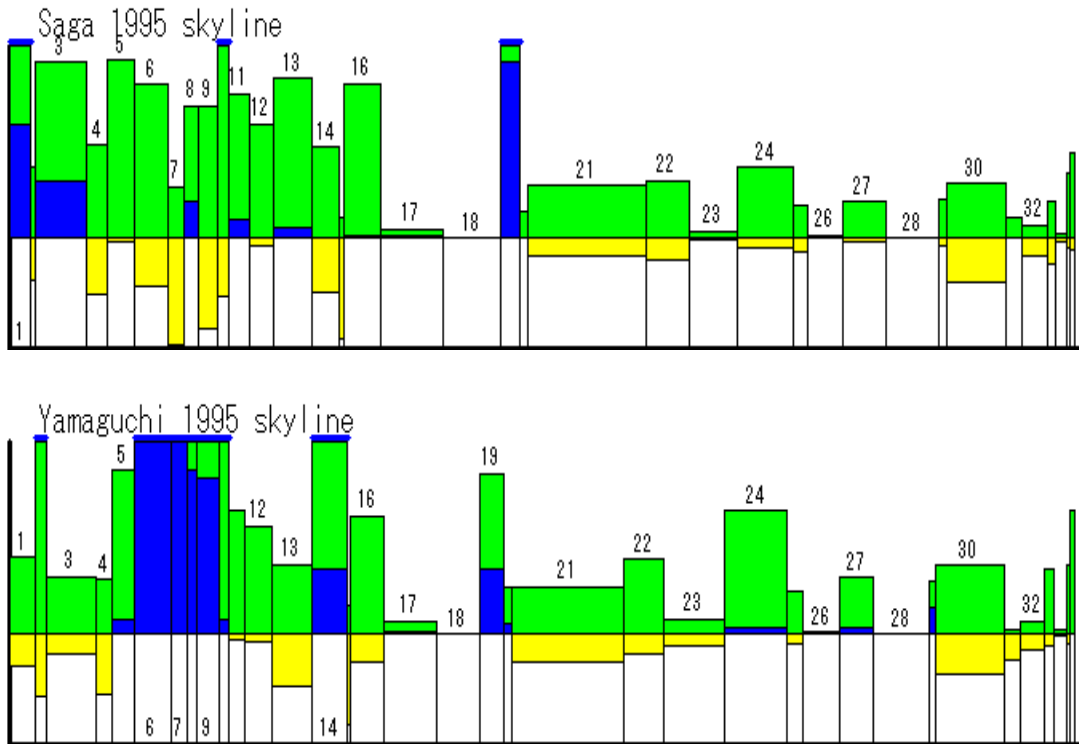
이용하여 그 생산유발액은

$$(11) \Delta X_1 = [I - (I - \widehat{M})A]^{-1} (I - \widehat{M}) \Delta F$$

로서 계산된다. 여기서 ΔX_1 는 생산유발액(제1차 파급효과), I는 단위행렬, \widehat{M} 는 수입 계수를 대각요소로 한 대각행렬, ΔF 는 발생수요 벡터를 가리키고 있다. 최종수요 증가에 의한 생산과급효과는 이 행렬(10)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지만, 행렬(10)은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산업구조나 이수입 의존도에 의해 결정된다. 앞에서 전국과 후쿠오카현에 관한 산업구조를 비교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후쿠오카현과 사가현, 야마구치현과 비교한다. <그림 3>처럼 후쿠오카현과 마찬가지로 사가현이나 야마구치현도 지역외와의 거래에서 파생하는 수요의 비중이 크다. 사가현에서는 농림수산업과 식료품의 해외수요가 큰 것이 특징적이고 야마구치현에서는 철강, 수송기계, 화학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광업, 요업/토석제품에서 해외수요가 높다. 결국 사가현은 농업관련의 이수출에, 야마구치현은 소재형제조업의 이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되어있다. 즉 사가현, 야마구치현 모두 현내 몇 군데에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전력/가스/열 공급의 이수출이 높다. 한편 상업에서는 이수입이 이수출을 웃돌고 있어 후쿠오카현과의 거래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산업구조의 차이 : 후쿠오카현/사가현/야마구치현





(10)식의 열의 합은 각 산업에서 1단위 증가했을 때 유발되는 모든 산업의 생산액의 합을 나타내고 있고, (11)식에서 각 산업에 1단위 수요가 발생했을 때의 제1차 파급효과와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파급효과의 결과 고용자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증대한 소득을 취득한 가계는 여기서 새롭게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로운 소비가 새로운 생산파급효과를 낳고 그것이 또 새로운 고용자 소득 증가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고용자 소득과 소비를 통한 순환은 이론적으로는 끝없이 되풀이 된다.

이와 같이 고용자 소득의 증가를 통한 새로운 수요 증가를 생각할 때 최종수요 증가 효과는 제1차 파급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차수의 파급효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환은 급속히 감소해 가기 때문에 보통 제2차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2차 파급효과 ΔX_2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2) \Delta X_2 = [I - (I - \hat{M})A]^{-1}(I - \hat{M})[kW' \Delta X_1]C$$

여기서 k는 소비전환계수(소비자/고용자 소득액)로서 본 연구에서는 0.9를 가정하고 있다. W는 부문별 고용자 소득률(고용자 소득액/ 생산액)을 나타내는 열벡터로서 W'는 그 전치를 나타내고 있다. C는 민간 소비지출 수요구성의 기초가 되는 수요 벡터이다. <표 10>, <표 11>의 생산파급효과는 이 제2차 파급효과까지의 효과를 포함시킨 $\Delta X_3 (= \Delta X_1 + \Delta X_2)$

를 $(I - \hat{M})\Delta F$ 로 나눈 것이다. 즉 각 산업 1단위의 수요 증가가 산업전체에 어느 정도의 생산과급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나타내고 있다.

<표 10> 생산 파급효과 : 전국/후쿠오카현 (1985-95년)

No	산업	후쿠오카현 (95년)	사가현 (95년)	야마구치현(95년)
1	농림수산업	1.38515	1.46866	1.47896
2	광업	1.91190	1.86935	1.73364
3	식료품	1.57178	1.65790	1.75447
4	섬유제품	1.62062	1.54250	1.68052
5	펄프/종이/나무제품	1.69002	1.62419	1.75629
6	화학제품	1.67319	1.62014	1.75700
7	석유/석탄제품	1.61627	1.66064	1.21890
8	요업/토석제품	1.83871	1.78087	1.67566
9	철강	2.12506	1.49338	1.49931
10	비철금속	1.61616	1.45960	1.50723
11	금속제품	1.88022	1.52690	1.58390
12	일반기계	1.75447	1.55342	1.58991
13	전기기계	1.71799	1.53991	1.60145
14	수송기계	1.52542	1.41239	1.48622
15	정밀기계	1.75808	1.60710	1.63015
16	기타 제조공업제품	1.67490	1.59458	1.71205
17	건설	1.80519	1.68615	1.70199
18	토목	1.86577	1.76982	1.71381
19	전기/가스/열공급	1.75644	1.59564	1.58754
20	수도/폐기물처리	1.73943	1.70675	1.67080
21	상업	1.79925	1.73801	1.74186
22	금융/보험	1.75131	1.70215	1.69074
23	부동산	1.22310	1.28189	1.19088
24	운수	1.91767	1.79280	1.81911
25	통신/방송	1.75291	1.65616	1.65694
26	공무	1.93797	1.82187	1.83360
27	교육/연구	1.85860	1.77436	1.79131
28	의료/보건/사회보장	1.74175	1.74428	1.82475
29	기타 공공서비스	1.85768	1.72633	1.76287
30	대사업소서비스	1.72353	1.64304	1.65899
31	오락 서비스	1.57058	1.53542	1.55809
32	음식점	1.76209	1.72271	1.78646
33	여관·기타 숙박시설	1.82520	1.77945	1.80203
34	기타 대개인서비스	1.64524	1.62289	1.61681
35	사무용품	1.65942	1.61433	1.79569
36	분류불명	1.67506	1.79738	1.65540
	평균	1.72856	1.64230	1.65348

<표 11> 생산 파급효과 : 후쿠오카현/사가현/아마구치현

№	산업	전국 (85년)	전국 (95년)	후쿠오카현 (85년)	후쿠오카현 (95년)
1	농림수산업	2.03784	2.05334	1.47460	1.38524
2	광업	2.43982	2.29241	1.99607	1.91221
3	식료품	2.47908	2.52859	1.69556	1.57190
4	섬유제품	2.87313	2.72677	1.82102	1.62078
5	펄프/종이/나무제품	2.65915	2.76476	1.84483	1.69020
6	화학제품	3.03685	2.70439	1.69737	1.67348
7	석유/석탄제품	1.90508	1.53313	1.51568	1.61665
8	요업/토석제품	2.44445	2.45705	1.79495	1.83933
9	철강	3.52308	3.09944	2.39382	2.12552
10	비철금속	2.66810	2.55498	1.71362	1.61640
11	금속제품	2.67419	2.77500	2.05457	1.88056
12	일반기계	2.80399	2.85996	1.95847	1.75463
13	전기기계	3.31162	2.83042	1.77400	1.71813
14	수송기계	3.38180	3.39943	1.87060	1.52550
15	정밀기계	2.76920	2.76602	1.76402	1.75824
16	기타 제조공업제품	2.55348	2.71852	1.77658	1.67498
17	건설	2.61058	2.74167	1.96736	1.82878
18	전기/가스/열공급	1.94974	2.03098	1.55022	1.75796
19	수도/폐기물처리	1.98424	2.20102	1.84574	1.74014
20	상업	2.37545	2.29853	1.93549	1.79936
21	금융/보험	2.51613	2.23601	1.78160	1.75144
22	부동산	1.31609	1.34978	1.28592	1.22391
23	운수	2.34823	2.40816	1.97351	1.91797
24	통신/방송	2.27127	2.17764	1.73578	1.75416
25	공무	2.39861	2.62499	2.05189	1.93852
26	교육/연구	2.23684	2.43491	1.97719	1.85896
27	의료/보건/사회보장	2.29193	2.62987	1.78081	1.74097
28	기타 공공서비스	2.16843	2.51795	1.86967	1.85758
29	대사업소서비스	2.34164	2.42599	1.88684	1.72362
30	대개인서비스	2.06157	2.34392	1.72822	1.69335
31	사무용품	3.50395	3.44453	1.93371	1.65948
32	분류 불명	2.50525	2.13492	1.78650	1.67485
	평균	2.51377	2.50203	1.81988	1.72765

일반적으로 제1차 파급효과는 제조업쪽이 서비스업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서비스업쪽

이 2차 이후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2차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생산파급효과 규모는 제조업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표 11>) 이것은 서비스업의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있어서의 수요 증가가 가져다 주는 고용자 소득 증가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예를 들어 산업 공동화로 인해 제조업부문에서 최종수요를 잃게 되더라도 서비스업이 이를 보완하여 성장할 수 있다면 지역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사업(토목에 포함)은 지방이나 국가에서도 여전히 유효성이 높은 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제2차 파급효과까지 생각할 때 지방에서는 의료/교육/사회보장 등의 공공서비스의 충실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며 경제의 서비스화를 감안한 재정지출의 바람직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관광관련 산업에서는 상업, 운수, 음식점, 여관/기타 숙박소의 파급효과는 제2차 파급효과까지 포함하면 지방에서는 크기 때문에 장기 체재할 수 있는 관광객을 지역외부로부터 유치하는 것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쿠오카현에서는 의료/보건/사회보장보다 이와 같은 관광관련 산업의 진흥쪽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처럼 관광진흥은 지역의 활력 유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표 10>에서 나와 있듯이 생산파급효과 자체가 근년 저하되는 경향에 있다.

특히 후쿠오카현은 지역외부와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으로부터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 관광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비교적 크다고는 하나 지역의 기반이 되어 온 제조업의 파급효과에 비하면 아직 작고 산업공동화나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지역사회의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지역의 기반이 되어 온 제조업은 지역의 상업, 운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광관련 산업을 지지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광진흥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될 제조업의 유지/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8. 결론

현재 일본의 관광진흥에서 지역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2000년도의 「북부큐슈에 있어서의 테마 파크의 현황과 경제파급효과」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쿄 디즈니랜드 등의 미국판 테마 파크 뿐이다. 그 강점의 비결은 ①특허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테마 ②입지 ③인건비 절약 ④계속적인 추가투자 ⑤관광산업계의 분업에 따른 협업 ⑥공공재 및 서비스의 무상 취득 등으로서 여기에 무엇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업화계획(피지빌리티 스타디)이었다.

미국판 테마 파크 이외 지역관광진흥이 모두 무너진 일본의 실정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친 거품경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당시는 지역의 경제진흥이나 새로운 도시

조성이 유행어처럼 되어 관광개발이 추진되었다. 이는 실은 동아시아의 공업화와 이에 의한 국내산업의 공동화, 국내 유망 투자처의 상실, 그 결과가 테마 파크를 대표로 한 관광 및 부동산투자였던 것이다. 기업, 자치체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동향에만 눈이 멀어 산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다는 경영사상이 경시되어 갔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일본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만연되었음을 97년 동아시아 통화/경제위기를 통해 명백해졌다. 실물경제의 쇠퇴와 과열화된 관광과 부동산, 주식에 대한 투자문제는 앞으로도 동아시아가 공통으로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일본 전국 및 북부큐슈의 관광진흥은 미국 스타일의 경영방법을 배워 관광산업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체질로 변한다고 재생이 가능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관광의 진흥에 지역의 미래를 걸어왔던 지역에서 현재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불경기로 인한 관광객 수의 감소보다 지역내 산업연관의 붕괴로 인해 이수입품의 급증, 생산인구 감소, 지역주민 인구의 고령화로서 지역내 소득은 물론 발전기금까지 국외나 지역외로 누출되어 지역전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지가가 하락되는 점에 있다 하겠다. 관광진흥의 평가기준은 토지(생산요소의 하나이기도 함) 가격 상승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낳는 모체가 될 거주인구의 증가에 두어야 한다.

지방의 중소도시가 관광진흥에 의한 관광수입의 승수효과를 강조하여 자원배분 변경을 수반한 관광진흥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생산과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큐슈지역의 경우, 테마 파크는 관광 소비액 전체의 2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요로 인한 생산과급효과(1차분)는 1.34~1.40배 이다.¹⁰⁾

이 승수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특별히 큰 것은 아니다. 북부큐슈지역의 경제진흥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지역이 키워 온 생산기술(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탈공업화나 국제화 등의 조류에 밀려나가지 않도록 새로운 산업을 지역에서 양성해 나가는 등 지역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지역의 자급률을 하락시키는 것과 같은 관광진흥을 지속해서는 안된다.

즉 세계화와 국제분업, 그리고 탈공업화의 흐름에 대해 공업사회의 성과나 지역고유산업을 부정하고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에 전폭적인 신뢰를 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지역의 관광진흥은 지역의 경제진흥이란 전체를 속에서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 河村 誠治, 野村 淳一(2002) [큐슈의 테마 파크 분석과 지역진흥] [동아시아에의 시점 2002년3월호] (재)국제 동아시아 연구센터, 78페이지

<참고문헌>

- 1) (財)國際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2002)『東アジアへの視点2002春季特別號－東アジア經濟の趨勢と展望』.
- 2) 關滿博(1993)『フルセット型産業構造を超えて』中公新書.
- 3) 伊東維年(1998)『テクノポリス計劃の研究』日本評論社.
- 4) 下河邊淳(1994)『戦後國土計劃への證言』日本經濟評論社.
- 5) 河村誠治・野村淳一(2002)「九州のテーマパーク分析と地域振興」『東アジアへの視点2002年3月號』(財)國際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
- 6) 河村誠治(2000)『觀光經濟學の基礎』九州大學出版會.
- 7) 佐賀縣廳ウェブサイト (<http://www.pref.saga.jp/>) 『平成7年 佐賀縣産業連關表』.
- 8) 總務廳ウェブサイト 『昭和60年-平成2年-平成7年全國表の接續産業連關表 (基本表,統合表)』 (<http://www.stat.go.jp/data/io/6.htm>) .
- 9) 得津一郎・藤川清史(2001)「産業連關分析入門 (5)」『産業連關』第10卷1號,環太平洋産業連關分析學會
- 10) 福岡縣廳ウェブサイト (<http://www.pref.fukuoka.jp/>) 『昭和60年 福岡縣産業連關表』
『平成7年 福岡縣産業連關表』.
- 11) 宮澤健一 編(2002)『産業連關分析入門 <新版>』日經文庫
- 12) 山口縣廳ウェブサイト (<http://www.pref.yamaguchi.jp/>) 『平成7年 山口縣産業連關表』.
- 13) 山田光男・朝日幸代(1999)「産業の空洞化と地域經濟 —三重縣内外2地域間産業連關表による—」『産業連關』第8卷4號,環太平洋産業連關分析學會